

# 겨울 미세먼지 선제대응, 대형사업장 30곳 집중 단속

## 서울시 특별단속반 편성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 점검 적발 사업장 재점검... 이행 재확인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의 대형사업장 429곳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철거,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곳에 대해 8개 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339곳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주 2회 내외로 점검한다. 급변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가



살수시설 모습(왼쪽)과 도로 물청소 모습.



/서울시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대형공사장 야적 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

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상태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 이행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재점

검을 실시해 조치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개로 지난 2월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민, 자치구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라며 "대규모 철거나 골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 토사나 토사 운반 차량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 결선 경연

대상 팀에 해외공연 추진·창작지원금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7시 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 최종 결선 경연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은 지난해 서울시와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해태가 체결한 '남산국악당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된 청년 국악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단장은 경쟁력 있는 국악인 발굴과 육성, 활동 지원을 꾀 키지화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결선에서는 지난해 본선 경연을 거쳐 선정된 5개 팀(궁예찬, 깎두기, 뉘뉘, 뮤르, 헤이스트링)이 경연을 펼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강은일, 유경화, 이희문, 이서운, 이아람 등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아 공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왔다.

결선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내년도 해외 공연 추진비(항공료 및 경비지원), 창작지원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금상팀에게는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결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 단체 프로필 사진 촬영, 홍보 영상 제작, 국영문 소개자료 제작 등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2019년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제작한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단독공연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경연에서는 국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전문 심사위원,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전통문화 국제교류 관계자,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문예회관 공연기획자, 전국 주요 축제 프로그래머 등 공연 유통 관련자 등을 초청해 젊은 국악인을 알릴 예정이다.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산골한옥마을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최종 결선에 참가하는 아티스트 '깎두기' /서울시

##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

서울도서관, 25일 서울시장서 개최 협치사업 일환... 누구나 참여가능

서울도서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장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관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 '서울시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민 이태중 씨와 정성욱 씨에 의해 제안됐다.

먼저 지역도서관 실태조사를 제안한 시민의 정책 제안 배경, 참여 과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때에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 후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서울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

책을 수립·시행하는 정책도서관이다. 앞서 서울도서관은 지난 6월 서울시 도서관발전 2차 계획에 해당하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도서관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도서관 정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지역도서관 정책 소관 부서에도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는 25개 자치구에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나누는 정책 공론화의 첫걸음이며, 협치체도로 시작한 '서울시 지역도서관 이용실태조사'이다"며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예술교육센터 사업 결과 공유회 '오픈랩' 진행

7명의 예술가 '예술놀이랩' 결과 공유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8년 사업 결과 공유회인 '오픈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기존의 예술교육을 예술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 창작과정을 높이 형식의 실험으로 개발·운영해왔다.

오픈랩 기획 전시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상주형 예술가들이 참여한 예술교육 연구개발 프로그램 '예술놀이랩'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예술놀이랩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현대미술, 한국화, 사운드스케이프, 응용연극,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7명이다.

본 전시는 예술가 프로그램의 연구 과정을 포함해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예술



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국기에 새겨진 시각기호를 이용해 '상상 속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기를 만드는 작업을 한 윤윤상 작가의 '환영합니다' ▲전자음악 작곡가 김자현의 우리 동네의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를 소리 나는 그림지도로 만든 '2018 서서울 사운드' ▲무심히 지나치는 경치에 그림을 얹어 만든 신다혜 작가의 '풍경 뒤의 풍경' ▲관계 예술 안에서 펼쳐진 다채롭고 영롱한 생각들을 표현한 김재현 작가의 '관계예술 속 판타지아' 등으로 이뤄졌다.

오픈랩 프로그램은 21일 오후 4시부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층 로비 공간에서 진행된다. 전자음악 작곡가인 김자현TA의 '비디오푸가 03' 공연과 이해원 TA가 연출한 '작은 낭독극'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 기간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희망자는 12일부터 20일까지 서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당일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놀이형 예술교육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줄여나가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라며 "'오픈랩' 개최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주민과 공유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교육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고시원 참사 막는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서울시가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시내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화재 취약시설은 소방·건축 공무원으로, 안전취약시설은 건축 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비상구 및 피난 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 여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 처짐, 변형 유무 등 건축물 상태 점검과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화재에 취약하거나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